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광주비엔날레·세계김치축제...

세계인들 '버킷리스트' 한국관광으로

문체부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 광주·전남 문화 행사 10개 포함 해외도시 'K로드쇼' 연계 행사도

축제의 장인 '서울페스타 2023', 세계적인 정원축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K-아트의 매력을 직접 느낄 수 있는 '프리즈-키아트 서울'과 전 세계 현대미술 거장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광주비엔날레'...

트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 ▲정남진 물축제 등이다.

아울러 한국관광 해외홍보 누리집(www.visitkorea.or.kr)을 통해 상세정보를 다국어 서비스로 제공하고 국내에서도 이와 연계한 외국인 관광객 환영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올해부터 365일 K-컬처를 경험할 수 있는 무대가 서울부터 지방까지 확 갈린다"며 "K-컬처와 관광을 융합한 매력적인 관광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재외한국문화원, 한국관광공사 해외 지사, 세종학당 등 K-컬처 전진기지를 활용해 한국방문의 해를 집중 홍보하고 확산해 한국 여행을 세계인의 버킷리스트로 각인시켜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시·도 상생 물거품...광전연 재분리 반대”

윤병태 나주시장 입장문 “시·도민 합의 정신 후퇴시켜”

나주시가 광주시와 전남도에서 촉발해 확산중인 광주전남연구원 재분리 논쟁과 관련해 “광주·전남 상생발전은 염원하는 시·도민의 위대한 합의 정신을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강한 유감과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 출연해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인 나주에 소재한다.

지난 1991년 최초 출범한 광주전남연구원은 2007년부터 각각 분리 운영 돼오다 2015년 당시 이낙연 전남도지사와 윤창환 광주시장이 양 시·도의 상생협력력을 기치로 연구원 통합 운영을 공동 합의한 결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지난 31일 입장문을 내고 “그간 수많은 결실과 노력이 한 순간 물거품이 될 수 있는 매우 안타깝고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연구원 재분리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윤병태 시장은 “광주전남연구원은 2015년 양 시·도가 우여곡절 끝에 이뤄낸 합의의 결과물이자 혁신도시 성과공유 등 미래 상생발전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상징적 결과물”이라며 연구원 존립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특히 “정부에서 올해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시·도 상생을 위한 긴밀한 연대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정원·수목원 '치유·휴식' 명소로 도약

지난해 474만 명 찾아...캠핑·음악회 등 특색있는 볼거리 연계

전남도의 정원과 수목원이 수려한 경관과 함께 캠핑, 음악회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접목해 치유와 휴식을 함께 즐기는 특색 있는 볼거리를 제공, 전국적인 휴양 명소로 도약하고 있다.

지난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전남지역 정원과 수목원을 찾은 방문객은 474만 여명으로 2021년(346만여 명)보다 128만명(37%)이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전남지역 모든 정원, 수목원 등의 방문객 수가 늘었다. 이는 누구나 가볍게 산책할 수 있고 자연 속에서 조용한 휴식 가능해 크게 각광을 받은 것이라는 분석이다.

방문객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곳은 순천만국가정원 50만명, 지방정원인 담양 죽녹원 12만명, 민간정원인 나주 3917마중 35만명, 해남 포레스트 수목원 7만명 등이다.

전남도는 도내 우수한 산림자원 중 가치 있는 곳을 조성·등록해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현재 총 20개의 정원, 수목원을 등록했다. 특히 민간정원은 정원별 특색있는 볼거리를 제공하며 최근 인기가 급증하고 있다. 장흥 하늘빛수목정원, 화순 무등산 바우정원은 연 7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곳으로 아름다운 경관과 함께 캠핑, 음악회 등 문화 행사도 개최해 전남뿐 아니라 타 지역 방문객까지 늘어나는 추세다.

수목원은 천혜의 난대림을 자랑하는 완도수목원과 지리산 자락에 수줍게 핀 야생화를 볼 수 있는 구례수목원, 가을이면 노란 은행이 수놓은 길이 유명한 나주 은행나무수목원이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공공기관 공인 영어 성적 인정기간 2년→5년 확대

앞으로 공공기관 채용에 필요한 공인 영어 성적 인정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채용 지침을 내주 중으로 각 기관에 배부하기로 했다.

채용 응시자가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토익·토플·아이엘츠(IELTS) 등 영어 성적을 등록하면 시험일로부터 5년간 해당 성적이 인정되는 방식이다.

성적 등록은 현장 올해부터 가능하지만, 현시점에서 유효한 영어 성적만 등록할 수 있다. 가령 2020년에 응시한 시험의 경우 이미 시험 주관 기관에서 인정하는 성적 유효 기한이 지났으므로 인정하지 않는다.

반면 2021년 10월에 응시한 시험이라면 올해 10월까지 등록이 가능하며, 이 경우 5년 뒤인 2026년 10월까지 성적을 인정해준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들이 점진적으로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생명 살리는 '심폐소생술' 배워요. 지난 31일 오후 광주 서구청 들불홀에서 서구 보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과 심폐소생술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국, 임야, 삽니다. 지분환영, 1000평 이상. 010-9582-7400

본 사 인사. ▲배영재 : 중부취재본부 화순주재 기자 (2월 1일자)

한국 지난해 국가청렴도 세계 31위...한단계 상승

100점 만점에 61점

세계 각국의 국가청렴도를 평가하는 조사에서 한국이 180개국 중 3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보다 순위가 한 계단 상승했다.

국제투명성기구(TI)는 지난 31일 '2022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CPI)'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대상 180개국 중 국가청렴도 1위는 덴마크(90점)였다. 핀란드·뉴질랜드가 공동 2위(87점), 노르웨이가 4위(84점), 싱가포르·스웨덴이 공동 5위(83점)로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63점을 받은 한국은 2016년 52위(53점)를 기록한 이래 6년 연속 순위가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에서는 22위로 지난해와 같았다.

한국투명성기구는 “한국은 상승추세를 이어가면서 역대 최고점수를 얻었다”며 “높아진 시민의 인식, 정부를 비롯한 각 경제주체가 노력한 결과



로 이해된다”고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평가 낮은 평가를 받은 국가는 12점으로 평가된 소말리아였고 시리아와 남수단(공동 178위), 베네수엘라(177위)도 최하위권이었다.

/연합뉴스

꼭! 받아야할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임대차 보증금·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24시간 상담가능.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고 제 2023-188호. 광주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재공고. 광주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입안신청 접수에 따른 입안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를 하므로 열람하시기를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1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2차). 본 회사는 2023년 1월 2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2023년 3월 11일까지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간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일 주식회사 광주남구천담피에프비 대표청산인 김대희

분할 및 주권제출공고 (재판외의 및 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에스에이(분할대상)는 2023. 1. 31. 임시주주총회에서 당시의 전월말 실적(연속손실)을, 재판외로 정상회생사업, 시설유지관리사업 등 관련 권리와 의무 일체를 분리하여 주식회사 에스에이(분할대상)의 사업을 단독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결정하고, 분할 대상인 회사는 분할되는 사업유체에 관한 책임만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이의가 없는 채권자에게 회의를 주유하는 의무 지움기간 내에 이의제기나 주권제출을 하지하지 않아야 함을 공고한다. 2023년 2월 1일 주식회사 에스에이 대표청산인 박수홍